

#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미적특성

-문신, 피어싱, 헤너를 중심으로-

이 승 은\*(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양 속 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신체장식의 기원과 심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신체장식의 표현방법과 이에 따른 내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미적 특성의 양상들을 조명하는데 있으며, 새로운 미적 범주의 하나로 신체 의미를 확대하여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미적가치를 정립하는데 있다.

신체장식의 기원은 호부설, 심미설, 상징설로 구분되며, 상징설은 다시 트로피즘, 테러리즘, 토태미즘, 에로티시즘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신체장식의 양상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이는 문신과, 구멍을 내어 뚫는 피어싱, 피부 표면을 염색하는 헤너로 범주화 하였다.

오늘날 신체 장식의 과감한 표현은 추를 미의 범주로 끌어들이게 되었고,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추의 대표적 예술양식인 그로테스크적 경향과 신표현주의적 경향 그리고 은밀한 부분의 장식을 통해 신체를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페티시즘적 경향으로 분류하여 고찰함으로써 신체장식을 현대패션의 범주로 확대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신체 이미지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그로테스크적 특성은 저항성과 과시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항성은 핑크나 스킨헤드와 같은 다양한 저항집단들이 그들만의 독특하고 과감한 문신이나 피어싱과 같은 신체장식으로 사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反)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킨헤드에게 문신은 집단적 결속력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저항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수단이었다. 또한 핑크는 시각적인 폭력을 주는 문신을 하여 엘리트만이 추구하는 단일한 예술체계의 존재에 저항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이루

는 개성있는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과시성은 남성적인 힘·용기를 상징하는 모티브들이 몸에 문신이나 변형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신체를 지나치게 과장시켜 공격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과시하고자하는 내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모티브로서 용은 신비·권위의 상징이며, 용의 무한한 능력에 의탁하여 인간의 욕구와 정서를 대입시키고 용의 힘을 빌어 성취하고자 하였던 인간의 욕망·기원·정서가 담겨 있다.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신표현주의적 특성은 원시성과 신화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시성은 강력한 원색의 원시적인 색채, 자연요소적 문양들을 프린트하거나 동물의 뼈나 뿔, 새의 깃털과 같은 종교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표현매체를 신체에 장식하는 것으로 원시인들의 생활모습을 재응용하고 있다. 코를 뚫어 피어싱 장식을 하고 머리에는 동물의 털로 거대하게 장식을 하여 옛 원시인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장식하던 모습이나, 뚫어진 구멍의 크기나 귀걸이의 갯수로 자신의 부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던 원시인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신화성은 신화 속에 표현되어지는 신화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새기면서 나타나고 있다. 지옥·고통을 상징하는 악마의 모습이나 신·자유를 상징하는 날개, 용기·능력을 의미하는 영웅의 모습이 주로 묘사되어 신화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표현되고 있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신체장식의 페티시즘적 특성은 퇴폐성으로 나타난다.

신체의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장식에 의해 성적으로 노골화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구를 표출하거나 장식된 부위에 더욱 관심을 끌어 극도의 에로틱한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제 2의 성기로서 인식되는 배꼽과 성기, 유두를 뚫어 피어싱하거나, 욕망·관능적인 유혹을 상징하는 붉은 장미나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문양을 문신하여 장식된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극하여 더욱 에로틱한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신체장식은 과거의 특정 시대나 특정 스타일의 재현이 아닌 과거의 여러 요소들이 자유롭게 융합된 스타일로서 과거의 것에 대한 재현과 인용의 성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자신의 신체를 매력있게 장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나르시즘적 욕망에 의한 신체장식은 현대 패션에서 신티랜드의 패션 아이템으로써 자리잡을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며, 더 이상 터부시되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비밀스럽게 이용되던 저급한 표현이 아닌 대중문화로써 그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